

〈전능하신 그리스도와 열두 제자들〉, 12세기, 템페라, 카타루나 예술 박물관, 바르셀로나, 스페인

성화해설

나무 제대의 전면을 장식하고 있는 이 작품에는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전능하신 그리스도는 생명의 책을 쥐고서 손을 들어 만백성을 축복해 주고 있으며 제자들은 두 명씩 짝을 지어 한 테두리 안에 묘사되어 있다. 바깥 테두리는 식물과 동물, 기하학적인 문양으로 장식되어 이 작품에 아름다움을 더해 주고 있다.

입당송 시편 17(16), 15 참조

제1독서 아모 7, 12-15

화답송 시편 85(84), 9-12과 10, 11-12, 13-14(◎8)

-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이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 보리라. ◎
-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

제2독서 에페 1, 3-14〈또는 1, 3-10〉

복음환호송 에페 1, 17-18 참조

-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복음 마르 6, 7-13

영성체송 시편 84(83), 4-5 참조

당신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길을 떠날 때에..., 아무 것도 가져가지 말라.



구요비 읍신부 | 프라도회 한국책임

내가 주임신부로 사목하던 본당에서 세례를 받으신 불문학 교수님이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번역한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조르쥬 베르나노스 저 / 정영란 역)를 최근에 선물로 받았다. 주님은 찬미를 받으소서!

이 책을 밤을 꼬박 새워 읽으며 심오한 영적독서를 접하는 심정이다. 조르쥬 베르나노스는 불란서의 가톨릭 작가인데 인간의 내면에서 해파리처럼 입 벌리고 있는 권태와 허위, 공허와 위선 안에 질게 드리워진 악의 세력과 싸우며 살아가는 사제를 주인공으로 하는 많은 작품을 남겼다.

이 짧은 사제의 모습 안에는 아스 본당의 요한 비안네 성인의 삶과 영성이 담겨 있는 것 같다. 작가는 자주 '범용(凡庸)한 사제는 추하다' 라고 가혹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는데 이 작품 안에서는 범용한 사제에게까지도 따뜻한 시선과 연민의 정을 보여주고 있다. 주인공 사제는 위암의 병고를 늘 짊어지고 신음하며 살고 있는데 내성적 성격으로 유약하고 서툴며 비효율적인 사목으로 자주 실수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을 우직하게 사랑하며 그 영혼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는다. 약점투성이의 무능해 보이는 이 짧은 사제의 순수한 마음 안에 깃들어 있는 영적 감수성이 병들어 있는 영혼들의 내면세계를 꿰뚫어 보는 혜안으로 번득인다.

이 마을의 유지인 백작 부인과의 우연한 만남과 긴 영적 대화 중에 오랜 세월 동안 하느님을 증오하고 거부해 온 이 귀부인이 하느님과 화해하는 극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평안히 있을지어다’ 하고 나는 부인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 평화를 무릎 꿇고 받았었다... 내가 그 평화를 부인에게 주었다.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것은 이 얼마나 신묘한 일인가! 아아 우리들 두 빈손의 그옥한 기적이어!” (252쪽)

죽기 전의 편지에서 이 귀부인은 이렇게 쓰고 있다: 그 조그만 아기에 대한 절망적 추억이 저를 모든 것에서 분리하여 무서운 고독 속에 몰아넣어 두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어린이 하나가 이 고독에서 저를 끌어내 준 것같이 생각됩니다... 신부님은 정녕 어린이시니까요. 좋으신 주님께서 신부님을 그대로, 또 영원히 지켜주시기를!(244쪽)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하며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이 어린이의 마음이다(마태 18,3-4):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 (8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마르 1,17)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의 부르심은 파견을 위해서이다. 즉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따르는 참다운 제자로 살아갈 때 또한 부활하신 주님(kyrios)의 사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in persona Christi) 일할 수 있다. 여기에 제자들이 지녀야 할 마음의 가난, 어린이의 정신이 중요한 것이다!

‘어린이는 바로 자신의 무력감에서 제 기쁨의 근본 원리를 겸허하게 이끌어 낸다. 어린이는 모든 것을 제 어머니에게 맡긴다. 제 온 목숨, 인생 전체가 어머니의 시선 속에 있는데, 그 시선은 바로 미소이다.’ (베르나노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空無)’ 안에서 주님이 모든 것(空部)을 채워주시고 사도들 안에서 함께 일하신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12-13절)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마르 6,12).

일할 권리, 쉴 권리



김희진 사비나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7월 이다! 학생들처럼 방학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도 왠지 마음이 들뜬다. 날씨는 더워지고 축축해 지는데, 어딜 가나 북적북적 사람들로 가득 차서 여유롭게 다닐 수도 없는데, 휴가철이라고 이것저것 가격은 비싸지고... 따지고 보면 오히려 일상이 더 팍팍해지는데 왜 7월이란 말을 들으면 즐거울까? 그건 아마도 ‘휴식’이라는 단어와 연결되기 때문인 것 같다.

나는 시민단체에서 일하지만 외국계(?)라는 특징으로 휴가에 대해서 매우 자유로운 편이다. 주어진 휴가를 다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막상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을 내서 휴가를 가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지 여름만 되면 한꺼번에 몰아서 1~2주일 휴가를 내게 된다. 주변 사람들은, “거기 좋은 회사네!”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알고보면 우리 정도의 휴가는 다들 가지고 있었다. “에이, 그걸 어떻게 써요, 그것도 한꺼번에”라고 얘기하지만 목소리에 여전히 부러움이 가득하다. 나도 처음부터 휴가를 다 썼던 건 아니다.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휴가를 가도 쉬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휴가를 포기하자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결국 쉬지 못한 사람들은 몇 년 안 가 탈진되었다. 런던본부의 조언으로 휴가사용을 철저히 하도록 하자,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었고 새로운 도전들을 계속할 수 있었고 주변의 것들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할 권리와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선언문 중

세계인권선언은 자유와 정의, 평화를 보장하는 거창한 문헌이긴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휴식에 관한 조항이 그렇고 23조는 다음과 같다.

[제23조]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지난해 겨울,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30조항중 자신에게 가장 와 닿는 조항을 선택해달라는 설문을 한 적이 있다. 당시는 경제에 대한 불안 때문이었는지 23조와 24조를 선택한 사람들이 무척 많았다. 그러면서 “휴식의 보장과 노동의 보장이 인권에 포함되는지 몰랐다”라는 말들을 했다. 나로서는 그 반응이 더욱 놀라웠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이는 별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구약의 시작인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 자신도 엿새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에게 ‘휴식’은 아마도 신앙인으로서 지난날을 돌아보고 앞으로를 계획하는 시간이 아닐까? 나도 이번 휴가에는 그냥 TV나 보며 뒹굴 거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휴식의 의미를 찾아봐야겠다.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배우기 28

배아 감수(減數)는 고의적인 선택적 낙태이다

“윤리적 관점에서 배아 감수는 고의적인 낙태이다. 이는 사실 고의적이고 직접적으로 한 명 이상의 무고한 인간을 그 존재의 초기 단계에서 제거하는 것이고 그 자체는 늘 심각한 도덕적 무질서를 야기한다 ... 배아 감수를 윤리적으로 정당화하는 주장은 종종 ... 최선을 다했지만 모든 사람을 구할 수는 없는 자연 재난이나 위급 상황에 비유된다 ... 선의의 결과를 염두에 둔 것이라 해도 본질적으로 불법적인 것은 허용할 수 없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인간의 존엄 21항).

체의 수정으로 시험관에서 만들어진 배아가 모태에 이식될 때 착상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배아를 자궁에 넣음으로써 다태(多胎) 임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모든 태아들이 건강하게 분만되기 어려우므로 선택적으로 소수의 배아들을 제거하는 ‘배아 감수’가 시행됩니다. 이는 다른 태아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무고한 인간 생명을 고의적이고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낙태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배아 감수는 원치 않는 성(性)이나 특성을 지닌 배아를 배제하는 우생학적 목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인간 생명의 가치를 오직 정상(正常)과 ‘신체적 안녕’의 범위 내에서만 측정하겠다는 것”이므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 22항)).

생명농업의 시작, 가족농을 지킵시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누리는 풍요가 그들의 궁핍을 채워 주어 나중에는 그들의 풍요가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 준다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많이 거둔 이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이도 모자라지 않았다’”(2코린8,14-15).

생산지를 다니다 보면 농민들의 지지고 볶는 일상의 삶 한구석에 슬쩍 엉덩이를 걸치고 술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고단한 농사일과 쌓여 있는 집안일, 또랑한 눈망울의 아이들 그리고 한 가족의 소박한 희망!

마산교구 안희성당에 다니는 한기조(구이도) 형제가 있습니다. 올해 돌 지난 막내와 초등학생 셋, 그리고 중학생인 큰애 그리고 늘 미안한 아내까지 일곱 식구가 함양의 지리산 자락 황석산 기슭에서 농사를 짓고 살지요. 논 2천 평과 밭 3천 평쯤에 벼농사와 양파, 고추를 심으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남의 땅 빌려 짓는 농사라 살림은 늘 벅차기만 합니다. 농작물은 제때에 농자재를 투입해주어야 차질 없이 생산이 가능한데 돈은 늘 수확 후 8월이나 되어야 들어오니, 일 년에 1천만 원쯤 드는 농사비용은 언제나 빚을 내서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농에는 무농약 양파와 양파즙을 공급하고 있지요.

춘천교구 양구성당의 마용하 알베르도 형제도 생각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밭 3천 평에 사과농사를 지으며 희망을 키워나가고 있지요. 한해 농사비용은 5백만 원쯤, 그런데 영농자금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한숨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태풍과 장마로 몇 번 사과농사 말아먹더니 빚이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농민주일에 서울대교구 우리농 이사장이신 김운희 주교님은 ‘농부는 이 시대의 聖職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시대 성직자를 당당하게 만들고 싶어

서울대교구는 든든한 버팀목을 세우고자 합니다. ‘가족농을 지키기 위한 서울대교구 연대기금’이 그것입니다. 매년 서울대교구 우리농의 수익금 25%를 출연할 것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으로 영농철에 한 가구당 5



백만 원씩 농사자금을 빌려 드리고 수확기에 추수한 농산물로 농사자금을 상환받는 제도입니다. 별거인가 싶으시겠지만 두 가지 효과는 확실합니다. 첫째는 아직 부족하지만 매년 지원되는 농사자금 만큼의 안정적인 판로와 생산 계획이 확보된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과잉생산, 가격폭락, 늘어만 가는 빚을 생각한다면 이 제도는 선순환 과정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든든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대출금 상환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자연재해 등 불확실한 미래를 함께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들도 함께 버팀목이 되어 주십시오. 은행처럼 이자는 못 드려도 추수 때에 이 당당한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지은 양파나 사과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원금은 서울대교구 우리농의 이름으로 보증해 드립니다.

이제 농사는 우리가 함께 짓는 것입니다.

조대현 바오로 신부 | 환경사목위원회
(문의: 2068-7066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거룩한 열정의 딸 수도회	7. 12. 14시-17시	사당동 본원	010-2704-6186
그리스도왕 선교 수녀회	7. 19. 14시-17시	수녀회 성북동 한국 본부	011-9386-3241
대구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매주(일) 14시	한강진 수녀원	010-4529-3429
마리스타 교육 수사회	7. 19. 14시	마리스타 교육관	010-2882-6227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7. 18-19.(피정)	강릉	011-9799-8790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사랑의 씨앗 수녀회	7. 17. 19시30분	씨앗 피정의 집	011-9193-3005
삼성산 성령 수녀회	7. 19. 14시-17시	수녀원 본원	010-2738-0039
성빈첸시오 아바오로 사랑의 딸회	7. 19. 14시	군포 수녀원	010-6625-0927
예수수도회	7. 19. 14시	홍지동 수녀원	011-9910-1198
위로의 성모 수녀회	7. 19. 14시	성북동 본원	010-2210-3660
한국 성모의 자애 수녀회	7. 19. 14시	계산서원(월명 성모의 집)	010-9407-6219

소식

서울대교구 상설 고해소 안내

장소	요일	시간	문의
명동대성당	주일	오전 10시~12시, 오후 4시~6시	774-1784
	월	오후 1시~5시(성직·수도자)	
	화~금	오후 12시30분~6시	
	토	오후 2시~7시	
봉천동성당	월	오후 2~5시	872-8611
혜화동성당	화	오후 7~9시	764-0221
오금동성당	수	오후 2~5시	408-5501
목5동성당	목	오후 2~5시	2644-1100
역삼동성당	금	오후 2~5시	553-0801
절두산순교성지	토	낮 12~오후 2시	3142-4434
방배동성당	수~목	오전 9시~12시, 오후 2시~6시	584-9731

· 서울대교구 상설 고해소 여름 휴무: 7월27일(월)~8월8일(토)

천주교 서울대교구 직원 채용 공고

서울대교구 당산동성당 야간 관리인 모집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7월18일까지 우편 접수)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주임신부 추천서 / 문의: 2068-0102, 017-244-0254

평화화랑 제1, 2전시실: 평화화랑 상설전

평화화랑은 '평화화랑 상설전'을 7월15일(수)~21일(화)에 전시합니다. / 문의: 727-2336

가톨릭 인터넷 굿뉴스 홈페이지(www.catholic.or.kr)에 서울대교구 및 산하단체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기억할 사제와 묘소

· 6월15일 윤형중 마태오 신부(76세) 1979년, 용산

7월 구역(반장) 월례연수 / 주제: 환자돌봄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7월13일(월)	불광동성당(지구자체)	
7월14일(화)	청량리성당(지구자체)	명일동성당
7월15일(수)	중곡동성당	역삼동성당
7월16일(목)	대방동성당	등촌1동성당
7월17일(금)	목동성당	

교구청 알림

낙태치유프로그램 및 월례미사 '희망으로 가는 길'

- 대상: 낙태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www.ihome.or.kr)
- 때, 곳: 7월14일(화) 오후 1시30분~4시30분, 교구청별관 6층 소성당 / 문의: 727-2071 사목국 가정사목부(회비 없음)

환경사목위원회 '제14회 농민주일 행사안내'

- 대상: 서울대교구 교우(회비: 1만5천원) / 문의: 727-2275
- 때, 곳: 7월19일(일), 원주교구 원동성당 대안리공소
- 내용: 농민주일 기념미사(김운회·김지석 주교 공동집전), 감사·옥수수 수확체험, 대동놀이, 먹을거리 마당 등

월간 선교지 '그대 지금 어디에' 수필 공모

- 내용: 월간 선교지 '그대 지금 어디에'에 게재할 수필을 공모합니다. 감동적이고 따뜻한 글로 소개는 제한이 없으며,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문의: 727-2032, 3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 접수: 우편 및 메일 접수 / E-mail: jubo77@hanmail.net
-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5 교구청별관 3층 문화홍보국

서울대교구 주일 밤 미사를 봉헌하는 성당 안내

서울대교구에 주일 밤 미사가 있는 성당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미사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미사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본당	미사 시간	문의	본당	미사 시간	문의	본당	미사 시간	문의
가락동	21시	425-2206	등촌1동	21시	3662-8626	신월동	21시	2696-6111
가좌동	20시30분	308-8871	명동	21시	774-1784	암사동	21시	442-8511
개봉동	21시	2615-8811	목동	21시	2643-2212	양천	21시	2647-6413
개포동	20시	574-4744	목5동	22시	2644-1100	연희동	21시	323-4450
고속터미널	21시	535-6604	문래동	21시	2678-0875	오금동	21시	408-5501
고척동	21시	2617-0561	반포4동	22시	3482-2255	이태원	20시	790-7551
구로1동	20시	866-2883	발산동	21시	2696-1945	잠실	21시	415-5321
구로3동	21시	857-8541	방학동	21시	3491-3131	장한평	21시	3394-8861
노원	20시	933-9981	봉천7동	21시	877-2131	종암동	20시	916-2061
논현2동	20시	516-5066	봉천동	20시	872-8611	중계동	20시	930-6708
논현동	21시	548-2443	사당동	21시	587-2291	천호동	22시	470-5821
대방동	22시	847-1784	삼성산	21시	875-2271	혜화동	21시	764-0221
도림동	21시	833-9439	서초동	21시	585-6101	홍제동	22시	396-7771
둔촌동	20시	482-1841	수서동	21시	2226-0231	화곡본동	20시	2606-1787

알림

모임

영적성장을 위한 감성수련

- 주제: 우울증, 기쁨으로 바꾸기(강사: 문종원 신부)
- 때: 7월21일(화) 10시-17시(회비: 1만원) / 중식제공
-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미사도구 준비) / 010-3078-5249

10지구 치유 대피정(7월)

- 강사: 신교선 신부 / 주최: 10지구 성령쇄신봉사회
- 때, 곳: 7월13일(월) 14시-17시, 오금동성당(전철 5호선 마천행 방이역 1번 출구) / 010-4749-7234

청년 주말 침묵피정 - '성 이나시오' 식기도방법

- 대상: 35세미만 청년(주최: 예수수도회)
- 때, 곳: 7월25일(토) 15시-26일(일) 16시, 오류동 수련소(회비: 3만5천원) / 010-5295-1609

성심교육관 하계 2박3일 무료피정

- 주제: "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쉼쉬어라"(마르6:31)
- 때: 7월17일(금) 오후 6시30분-19일(일) 오후 3시
- 곳: 성심교육관(성심기도원) / 031)262-7600

묵상 관상 기도 피정

- 미사: 신원식 신부 / 016-332-8789) 가르멜 동정녀회
- 때, 곳: 7월19일(일) 14시-17시, 가톨릭 출판사 신관 8층(전철 2호선 우천동역 5번 출구 직진 2분)

미혼 여성을 위한 주말 개인 피정

- 때, 곳: 매주(토) 오후 5시-(일) 오후 5시, 거룩한 열정의 딸 수도회(주최) 사당동 본원 · 강원도 유치리 피정의 집 / 584-6367, 033)432-6367

명동성당 월요 치유 대피정

- 내용: 미사, 강의, 치유기도, 안수(회비없음)
- 강사: 성직자, 수도자, 일반 교우
- 때, 곳: 매주(월) 13시30분-17시30분, 명동성당 내 별관 / 017-225-6072 명동성당 성령기도회

가족피정(부모님과 자녀)

- 대상: 모든 가족(자녀와 함께) / 031)674-1261
- 회비: 부모(1인)-3만5천원, 자녀(1인)-3만원(희망하는 날짜에 미리 신청 바람) / 031)674-1254
- 때: 1차 8월1일(토) 14시-2일(일) 16시, 2차 8월8일(토) 14시-9일(일) 16시, 3차 8월15일(토) 14시-16일(일) 17시
- 곳: 미라내 묵상의 집(주최) / 세면도구, 필기도구 준비

11지구 성령쇄신봉사회 철야기도회

- 내용: 고해성사, 미사, 강의, 안수 / 579-9870
- 때, 곳: 매주(금) 오후 10시30분-오전 4시, 개포성당

7월17일 박성구신부 7월24일 장규환신부 7월31일 이상기

성령쇄신봉사회 치유기도회 내적 치유세미나

- 고해성사, 상담, 강의, 치유기도, 미사(회비없음, 중식제공)
- 때, 곳: 매주(수) 10시30분-16시30분, 성령쇄신봉사회관(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5528-5535 버스 환승, 조원동 주민센터 앞 하차) / 867-7900

7월15일(수) 나의 그림자, 수치심의 / 정원순 신부

7월22일(수) 분노와 두려움의 치유 / 이영숙 수녀

서울대교구 자녀축복 철야기도회(7주간)

- 내용: 미사, 강의, 치유기도, 안수, 고해성사, 성체현시
- 때, 곳: 매주(금) 22시4시30분, 동성고등학교(전철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 / 강사: 사제, 수도자, 평신도

7월17일 하나님의 축복과 자녀 8월14일 성모님께 자녀 봉헌예절

7월24일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8월21일 자녀를 위한 중개기도

7월31일 자녀를 위한 미사기도회 8월28일 사랑의 영성산림치유안수

8월7일 자녀들의 신앙교육 문의: 867-7900(www.aks.or.kr)

대건 아프리카 선교후원회 기도모임(문의: 757-4416, 7)

열린 기도모임 내용: 말씀, 묵상기도와 찬양, 은혜의 시간, 안수, 미사
 때: 매주(목) 12시30분-17시30분
 곳: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 대상: 누구나(회비 없음)

월요철야 때, 곳: 매주(월) 22시3시30분, 철야 성전(전철 5호선 송정역 3번 출구 송정환의원 지하 1층)

성모승 2000번 때, 곳: 매월 둘째 · 넷째(토) 10시-17시, 철야 성전(전철 5호선 송정역 3번 출구 송정환의원 지하 1층)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 대침묵 1차 피정(문의: 990-1004)

- 때: 7월27일(월)-30일(목) / 회비: 15만원

젊은이 신약성경 통독피정

- 때, 곳: 7월24일(금) 19시-26일(일) 16시, 성령선교수녀회(회비: 3만원) / 010-5730-6322(sspskorea.org)

묵주기도 200단(성모승 2000번 기도모임)

- 세상 떠난 영혼을 위하여(중식제공) / 2209-6185
- 때, 곳: 7월14일(화) 10시-16시30분, 망우동성당(주최)

콘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젊은이 성소모임

- 대상: 고등학교 이상 30세까지(회비: 3만원) / 011-7404670
- 때, 곳: 7월29일(수)-31일(금), 양수리 정하상 바오로 수도원 / 7월24일까지 접수(세면도구, 여벌 옷 준비)

분도 명상의 집(부산) 텍시오디비나 피정

- 준비물: 성경 또는 매일미사책(회비: 9만원)
- 때: 7월24일(금) 16시(접수)-26일(일) 14시(피정 마침) / 051)582-4573, 010-6650-4574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회 젊은이 대피정

- 대상: 1차 중·고등부(여중고생) 2차 미혼여성(35세 미만)
- 때, 곳: 1차 7월31일(금)-8월2일(일), 2차 8월7일(금)-9일(일), 홍천 / 016-570-0939(회비: 2만원)

행복한 여행 하루피정

- 대상: 34세 미만 미혼여성 / 문의: 016-9876-0418
- 때, 곳: 7월19일(일) 오전 9시30분,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주최) 마리아 본원 / 회비: 5천원

직장인 미혼여성 피정(문의: 010-2646-7765)

- 때: 7월24일-25일, 9월11일-12일, 10월9일-10일, 11월13일-14일, 12월18일-19일 20시-8시
- 곳: 전교가르멜 수녀회(주최) / www.camis.org

젊은 여성을 위한 성소식별 침묵피정

- 때: 7월24일(금)-26일(일) / 010-5247-8913
- 주최: 원죄없으신 마리아 교육 선교 수녀회
- 홈페이지: cafe.daum.net/fiatmeeting

교육

한국에니어그램연구소 내적여정 에니어그램

- 소장: 박정자 수녀 / 501-2912(www.enneagram.kr)

내적여정 기본 1단계 7월23일(목) 24일(금) 10시-16시 명동성당 교육관 303호

내적여정 기본 2단계 7월25일(토) 26일(일) 14시-19시 연구소교육관

서초여성회관 에니어그램

- 강사: 이안숙(에니어그램 전문가, 심상치료사)
- 위치: 전철 2호선 방배역 1번 출구 / 522-0291, 2(223)

월요일 9월7일-11월9일 매주(월) 10시-13시(총 10회)

토요일 9월5일-9월26일 매주(토) 10시-16시(총 4회)

탈리다콤센터 문화강좌 안내

- 쉽고 재미있는 심리학적 이해를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와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풀 수 있는 강좌
- 문의: 742-9471, 3(문의 후 접수) / www.taly.co.kr

탈리다콤 영상강좌 매주(수) 11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희망 여행

생활심리 문화강좌 매주(수) 10시: 인간관계를 위한 심리학 이야기

서울카리타스 심리상담센터(문의: 776-7726, 727-2474)

인터넷과다시용어강좌 7월27일-8월12일 매주(월·수) / 선착순 7명

중등생: 10시-11시30분, 중학생: 12시-13시30분

내사랑가족사랑이해교육 7월30일-9월10일 매주(목) 19시-21시(7회기)

· 심리상담 및 치료: 개인 및 가족갈등상담(가톨릭회관 301호)

작은예수사랑음악원 기악 강습

- 곳: 작은예수회관(전철 5호선 군자역 6번 출구 농협 지하) / 문의: 018-330-3283

기타: 3개월 18만원 드럼 키보드(화성학)

일렉 베이스: 3개월 24만원 3개월 18만원 초급(3개월) 18만원

월·수·목(주 1회) 월·수·목(주 1회) 중급(3개월) 24만원

매주(수) 오후 1시-5시30분 / 웃음치유피정 월·수·목(주 1회)

한국가톨릭여성연구원 열린강좌/꿈워크숍(정동품사방)

강좌 7월18일(토) 오후 2시30분-5시 2164-4804

중년기 건강관 가족관계(국립중앙) 010-9537-2008

워킹맘 1차: 7월19일(일) 22일(수) 3차: 9월1일(화) 4만 원

2차: 7월23일(목) 26일(일) 3차: 9월1일(화) 4만 원

서강대 교육대학원 사목상담사 양성과정(1년과정)

- 대상: 가톨릭 성직자·수도자·평신도 / 705-8177, 8
- 접수: 8월3일(월)-7일(금) 10시-17시 / 전형일: 8월13일(목)

7지구 노원성당 혼인강좌

- 때, 곳: 매일 셋째주(일) 오후 3시-6시, 노원성당 나눔자리(전철 7호선 마들역 5번 출구)
- 회비: 2인-2만원(교재 · 간식) / 문의: 933-9981

상처받은 '나' 치유

- 내용: 마음 속 상처를 치유하여 소중한 '나'를 발견함 / 775-4831, 2 평화심리상담소
- 때: 7월21일(화) · 23일(목) 오전 10시부터(8주)

제2회 남녀수도자와 함께하는 젊은이 열린캠프

- 대상: 대학생 · 직장인 · 일반 남녀 모두, 35세 미만 젊은 남녀 / 접수: moeses96@hanmail.net
- 때, 곳: 8월21일(금)-23일(일), 한마음 수련장
- 회비: 5만원 / 010-3169-7416 이인접(주최: 한국남자수도회 사회생활단 · 남녀 장상연합회 성소개발팀)

시립 보라매 청소년 수련관

- 문의: 834-6411, 2(www.boramyc.or.kr)

청소년원동행캠프(농촌체험동행)	대상: 중·고등학교 선착순 40명(회비: 6만원) / 884-7234, 4
교육문화강좌	대상: 중·고등학교 선착순 40명(회비: 6만원) / 884-7234, 4
가족과 함께하는 인터넷종독전문영성교육프로그램	대상: 초·중학생과 부모(무료참가) / 836-1387, 8
가톨릭가족상담	대상: 8월8일(토)-9일(일) 1박2일, 암마침소녀수련원
가톨릭가족상담	대상: 일반 성인(서류접수 후 내부기준에 의해 선발)
가톨릭가족상담	대상: 8월10일(일)-14일(금) 10시-17시 / 836-1387, 8

모집

미래사목연구원 연구원(사회과학계열)모집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서류심사 후 면접)
- 접수: 7eternal@naver.com / 016-235-3850

성가복지지원 직원모집(문의: 010-4940-6113)

- 대상: 가톨릭 교우인 호스피스에 관심있는 내과 전문의 · 외과 전문의(의사), 경력 3년 이상(간호사)

미사

한국교회사연구소 후원회 미사

- 때, 곳: 7월17일(금) 11시30분, 명동성당 지하 소성당 / 756-1691(내선 1번) 한국교회사연구소

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 때, 곳: 7월16일(목) 오전 11시30분, 가톨릭회관 7층 / 내용: 미사(이준성 신부)와 친교
- 문의: 753-8765 새천년 복음화사도회

살레시오 월례 영성 강좌와 미사, 안수

- 주제: 영성생활이란 무엇인가(지도: 김보록 신부)
- 때, 곳: 7월13일(월) 10시-1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848-9932, 011-711-9928

안내

행복을 만드는 집(치료공동체)

- 여성알코올, 약물 의존자의 상담, 교육, 주거
- 문의: 485-8744, 016-458-9310

가톨릭 여성의 전화전화상담, 개인문제 등

- 가족갈등, 부부(폭력 등), 면접문제 등
- 상담시간: 매주(월-금) 오전 10시-오후 6시
- 면접 예약 및 사무: 3675-1338 / 상담: 745-1366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안내


- 대상: 장기요양인정등급 1, 2, 3등급(내용: 노환, 중풍,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방문서비스) / 762-2225 서울가톨릭재가장기요양기관(사회사목부 노인복지위원회 운영)
- 비용: 건강보험보조 85%, 본인부담금 15%(월 11-17만원 안팎·월 80시간 이용 기준)

※교회단체 '알림' 게재 안내

- 전화: 727-2033 / 팩스: 753-6006
- E-mail: jubo@seoul.catholic.or.kr

평화방송 · 평화신문은 매주 화요일에 은인과 후원자들을 기억하며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 그 위대한 여정을 따라’
터키-그리스 크루즈 성지순례



평화방송 · 평화신문은 바오로 사도의 위대한 발자취를 뱃길로 따라 떠나는 제4차 터키-그리스 크루즈 성지순례를 마련합니다.

이번 여름방학 특선 크루즈 성지순례는 바오로 사도의 발자취가 서린 그리스 아테네, 코린토를 비롯해 터키 이스탄불, 에페소 등과 함께 사도 요한이 묵시록을 쓴 파트모스 섬도 순례합니다. 아울러 지중해(에게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인 미코노스, 로도스, 크레타, 산토리니 등을 여행합니다. / 문의: 2266-1591~2

- 순례 일정: 7월29일~8월8일(10박11일) / 7월17일(금)까지 접수
- 순례 여정: 그리스-터키(아테네-코린토-이스탄불-미코노스-파트모스-에페소-로도스-크레타-산토리니) / 순례 경비: 398~458만 원(객실에 따라 4가지)
- 특전: 성인 2명 · 어린이(16세 이하) 1명 예약 시 어린이 100만 원 할인

평화방송 · 평화신문
여름방학 성지순례

- 1. 정통 유럽 3개국 순례**
 - 프랑스(루르드)-스위스-이탈리아
 - 7월31일, 8월14일 출발(8박9일, 329만원)
 - 2. 신·구약 성경의 세계 순례**
 - 이집트-이스라엘(8박9일, 249만원)
 - 7월23일, 8월6일, 8월13일 출발
 - 3. 성모발현성지 순례(10박11일, 339만원)**
 - 벨기에(반뇌)-프랑스(루르드)-스페인-포르투갈(파티마) / 8월5일, 8월12일 출발
 - 4.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 이스라엘 일주(6박7일, 209만원)
 - 8월1일, 8월8일 출발
- ※ 문의: 2266-1591, 2(www.pbc.co.kr)
평화방송 여행사

평화방송 텔레비전

TV 신앙상담 따뜻한 동행

이웃의 작은 아픔에 귀 기울여온 전화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아무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었던 가족 이야기나 신앙적인 갈등, 오랫동안 물어뒀던 사연 고백 등 시청자들의 진솔하고 아픈 사연을 6명의 상담사제와 맹경순 아나운서가 따뜻한 조언과 기도로 달래봅니다. 또 각 성당과 모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들의 활동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아름다운 동행’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담신청은 전화나, 편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가능합니다.

· 연출: 이용우 | 문의: 2270-2727~9 | 방송시간: 월~화 오후 2시(생방송) 화~수 새벽 1시 / 금~토 오후 8시 / 토~일 오후 2시(재방송)

평화신문 사원 모집

- 분야: 신문판매 관리직(신입, 계약직)
- 서류: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소정 양식),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7월23일(목) 도착분까지 유효
- 문의: 2270-2525~7 평화신문
- 누리방(www.pbc.or.kr) 참조

영화 ‘아빠의 화장실’

· 입장권: 8천 원 | 문의: 766-3390(내선 293)
· 상영시간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영화 ‘아빠의 화장실’은 희망으로 행복을 일구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춘마을 벨로에 교황이 방문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담은 영화로 소박한 인간미가 넘친다. 또한 남미의 사회적인 문제들을 풍자적으로 되짚어보게 한다. 7월31일(금)까지 하이퍼텍니다(전철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에서 상영한다.

공연 당일 2인 이상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를 지참하고 관람시 2천원 할인한다(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2인까지 할인가능).

더 모스트의 시네마 콘서트 - Present

· 입장권: R석 3만 원, S석 2만 원 | 예매 및 문의: 944-8416
· 공연일장: 7월12일(일) 15시·19시30분,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젊은 연주자 7명이 클래식, 영화음악, 월드뮤직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이들만의 색깔로 재창조하여 연주하는 멀티그룹 더 모스트의 첫 번째 정규앨범인 ‘PRESENT(성바오로 미디어)’ 출시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공연이다. 영화 ‘미션’, ‘시네마 천국’ 등의 배경이 된 영화음악을 아름다운 클래식의 선율로 연주한다.

전화예매한 뒤 공연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20% 할인한다(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2인까지 할인가능).